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2020년 팬데믹 당시 RMV에 줄을 길게 늘어선 주민들의 모습. RMV는 예약을 미리 받았지만 줄이 끊이지 않았으며 일부는 차량에서 대기토록 했었다. 이민자들 신분과 관계 없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시작하면 약 20여만명이 운전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스톤코리아 자료 사진)

## 7월 1일부터 이민신분 관계없이 운전면허취득, 알아야 할 것들

20여만명 신규 운전면허 신청, 차량등록국(RMV) 혼잡 예상  
이민자들의 언어와 문화 약점 노리는 사기도 증가할 듯  
RMV 웹사이트 방문해 준비서류 확인하고 사전 예약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사상 처음으로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직장 및 가족 이동법(Work and Family Mobility Act, 이하

WFMA)이 7월 1일 시행된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 발급관련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매사추세츠차량등록국(RMV)과 주정부는 새로운 운전면허 발급에 대비해 여러가지 준비

를 하고 있다. RMV는 많은 수의 신규 운전면허 신청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 수와 센터 운영시간을 늘리고 15개 국어로 새로운 안내서를 발급하고 있다.

새로운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 주정부는 웹사이트 Mass.Gov/WFMA에 개설해 구체적인 운전면허 신청에 관한 질문과 답, 그리고 번역 서류 등 제공 등의 안내를 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의 운전 >>7면으로 계속

## 그레이터 보스톤 단독주택 중간가격 사상 최고 90만달러

매매 건수는 전년 대비 24% 하락 미국 부동산과 정 반대로 움직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의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5월 그레이터 보스톤지역 단독주택의 중간값이 \$900,000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중개인연합(Greater Boston Association of Realtors)이 2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사상 최고가는 지난해 6월 기록했던 \$899,950였으며 약 1년이 안되는 시점에 다시 최고가를 기록했다. 5월 단독주택 가격은 2022년 5월에 비해 2.9% 오른 가격이다.

콘도미니엄 가격도 사상최고가를 경신했다. 5월 중간 가격은 \$726,002이었으며 이는 2022년 4월 \$717,000을 뛰어 넘는 가격이다.

앨리슨 쇼차 GBAR 회장은 이 같은 주택 가격의 인상은 극심한 매 >>7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음악회 미국인,한인 600여명 참가 성황

### 동서양 악기 어울려 이해·화합·창조를 보여준 무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편집부 = 하버드대학교 샌더스 극장에서 6월 16일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음악회에 여느 때 보다 많은 미국인 관객들과 어린이들의 참석하는 등 600여명의 관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보스톤대한민국총영사관과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음악회는 이번 음악회를 기획한 리처드 캐릭 교수가 연주될 음악에 대해 설명하고 연주자들이 나와 연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조선시대 궁중음악의 하나인 <황중궁>, 18세기 프랑스 작곡가인 르클레어의 <두 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지역희류 해금 산조 중 진양조, 윤운석류 아쟁 산조 중 중모리와 중중모리, 20세기 초 프랑스 작곡가인 라벨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가 연주되었다.

첫 곡인 <황중궁>은 동서양의 악기가 함께 등장하고 다섯 명의 무용수로 구성된 뉴체임버 발레단이 함

께 무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모던 발레와 조선시대 음악의 특이하고도 제법 잘 어울리는 만남이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 곡인 르클레어의 소나타는 바이올린(제이 코스모스리 연주)과 플루트(김수연 연주)의 편성으로 연주되었는데, 두 연주자가 보여준 유려한 음악의 흐름과 조화가 감탄을 자아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흐느끼는 듯 애절한 음색의 해금 산조(유정현 연주)와 시원하고 호방한 음색의 아쟁 산조(김유나 연주)가 연주되었으며, 관객들은 오랜만에 격조 있는 한국적인 소리와 음악을 직접 감상할 수 있었다.

그뒤 연주된 라벨의 소나타는 현대적인 사운드와 불협화음, 여유로움과 긴장감의 대비, 현을 활로 긋는 것과 손가락으로 튕기는 연주 기법의 교차 등을 보여준 어려운 곡이었는데, 바이올린(제이 코스모스리 연주)과 첼로(자크 우즈 연주)는 놀라운 집중력과 음악성으로 완성도 높은 앙상블을 보여주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연주와 발레단의 발레 (사진=김아람)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악기들의 연주가 한 공간에서 바로 연달아 이어져서 관객들은 각각의 아름다움과 대조적인 특징을 생생하게 인식하고 느낄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이것이 기획자의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되었다.

2부인 “Korean Influence”에서는 첫 곡으로 연주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중 자진모리와 휘모리(김현채 연주)가 능현과 섬세한 다이내믹 그리고 기교를 통해 관객들을 사로잡았으며, 발레와 함께 진행된 리처드 캐릭 작곡의 바이올린 곡 <성

음>, 타악기와 한국 리듬의 매력을 심분 발휘한 장구와 무가(방지원 연주), 한국적인 분위기를 살려낸 캐릭의 창작 실내악 곡 <사암>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 캐릭 교수에게 위촉하여 이날 초연된 <한미동맹 70주년 뮤직 셀러브레

**서울설렁탕**  
SEOUL SOUL RESTAURANT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eo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이선)이 발레와 함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이 메들리 곡은 한국의 강강술래, 아리랑 및 밀양아리랑 등의 민요 멜로디를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가 주도하고 미국 노래인 <Sweet Home Chicago>와 <That's All Right> 등의 블루스 멜로디를 해금, 아쟁, 가야금이 주도하다가 서로가 엮이며 조화를 이루었고, 이러한 음악이 모던 발레(미로 글루아르 안무)와 어우러지며 힘 있는 엔딩으로 마무리되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경계를 넘어서란 제목과 <어느 미국인 작곡가의 한국 음악 다이어리>라는 부제에 어울리게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이 돋보였다. 서양 클래식 음악 악기로 함께 연주된 한국 음악, 모던 발레와 함께 어우러진 한국 음악 등

새로운 시도들이 신선했고, 한국에 대해 알고 있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 호감을 가진 외국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 앞서 홍순복 보스턴총영사관 부총영사가 무대에 올라 환영사를 전했으며, 전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제1부회장인 앨버트 매카시 씨와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소장인 니컬러스 하크니스 교수가 축사를 전했다.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한 총영사관과 한미예술협회 측은 서로의 협력과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참석한 관객들 그리고 원숙한 기량을 발휘하여 무대를 채우고 감동을 준 아티스트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를 표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음악회 후 연주자 및 행사진행 및 주최측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사진=김아람)



17일 덴버 소재 선태권도 아카데미에서 출정식을 가진 재미대한 태권도 협회

## 보스턴 재미대한 태권도협회 미주체전 선수단 출정식

**(보스턴=보스톤코리아) 오은희 사무국장, 편집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제 22회 전미주 한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보스턴 재미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순우)는 덴버 소재 선태권도아카데미에서 선발된 태권도 선수들과 출정식을 6월 17일 개최했다.

출정식에 앞서 보스턴 재미대한 태권도협회는 보스턴 재미대한체육회(회장 오진욱) 주관으로 태권도 선발전을 개최하여 겨루기와 품새 선수를 선발했다.

겨루기 부문에서는 중등부에서 김배, 안나린 남녀 2명, 안종윤, 정소

영 일반부 남녀 2명 이 선발돼 출전하며, 품새는 중등부에서 손희수, 오재진, 최한빛, 고등부 정한영, 흥한영, 일반 정소영, 장년부 1명 등이 선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10명의 태권도 선수와 감독, 코치 5명이 대회에 참여한다.

체육인들의 축제인 이번 뉴욕체전 태권도 부문에는 미주 20개 태권도 지회에서 총 202명의 역대 최다 선수가 참가한다.

태권도 협회와 참가선수들은 출정식에서 마지막 태권도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히 경

기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홍순우 태권도 협회 회장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보스턴 지역을 대표해서 탁구, 배구, 배드민턴, 야구, 육상, 태권도 총 6개 종목으로 총 80여명의 보스턴 선수단이 참여하는 만큼 기대가 크다. 전 미주에서 선수단 6500여명 이상이 모이는 미주 최대 행사인 뉴욕 미주체전이 한인 아마추어 선수를 양성하고 국위선양 및 민족 문화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큰 한걸음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미주체전 보스턴 선수단 후원문의: 401-935-9506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 평통, 올해도 한국전 참전용사 묘지에 태극기 달며 감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최은경 평통부회장, 편집부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최은경 평통부회장,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는 매사추세츠주 윈체스터 소재 윈체스터 와일드우드 묘지 (Winchester Wildwood Cemetery)에서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17일 토요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보스톤 평통 자문위원, 보스톤 한미 노인회, 상록회, 한인회, 보스톤 지역 사회 한인과 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한선우회장은 개회사에서 “70여 년전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국전쟁에 참가해 순국하신 미국군인들은 대부분 미혼상태였고 현재는 부모형제마저도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 묘비를 돌보아줄 분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에서는 국기달기행사를 특화사업으로 지정해 매년 행사를 주도함으로써 한인회, 노인회, 한국학교, 기타 한인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전쟁의 아픔과 참전용사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장영수 한인회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날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모두 숙고해야 하고 지나간 아픈 전쟁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며, 후세들에게 힘써 알리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은 장수인 수석부회장은 “이번 행사가 한인 공공외교의 장이 되고, 더 나아가 한미 동맹과 우호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행사를 준비한 공동준비위원장 박찬모 위원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없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봉사자들을 대표해서 관리자에게 전달했다.

본인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재향군인이시며 이곳 묘지에 안장되어 계시다고 밝힌 묘지 총관리자는 “이날의 행사가 더욱 뜻 깊고, 75에 이커에 달하는 넓은 묘지에 국기를 단 한인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윈체스터 로컬 신문도 취재했다.

또한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은 최은경 부회장은 “이번 행사는 후세대인 학생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한



17일 윈체스터 와일드우드 묘지에서 열린 태극기 달기 행사에 참가한 한인들(사진 위). 한인회 장영수 회장 및 임원(사진 아래 왼쪽), 평통 한선우 회장 및 노인회 관계자들. (사진=상록회)

함을 상기시키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다짐하는 뜻 깊은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 HINGHAM AFFORDABLE HOME OWNERSHIP LOTTERY



29-31 Rhodes Circle (2) 3BR Units \$220,000  
Condo fee \$200/mo. Asset limit: \$75,000

Income limits:  
1P \$62,732 2P \$71,694 3P \$80,656  
4P \$89,580 5P \$96,765  
App deadline 7/28/23 Free LEP translation.

Info meeting 6/28/23 @ 6 pm via Zoom  
Meeting ID: 831 8904 5193 Passcode: 026959

Lottery 8/2/23 @ 6 pm via Zoom  
Meeting ID: 836 9829 8334 Passcode: 810438

Info & apps: LA Assoc. (978) 758-0197  
fax (978) 657-7333 kriscosta@laassoc.com  
www.laassoc.com Town Hall & Public Library  
TTY: 711, 978-758-0197





튜턴의 성 앙투앙 다블뤼 한인천주교에서 열린 2023년 서울대 동창회에 참석한 뉴잉글랜드 동문들

## 서울대 동창회 춘계야유회 및 장학금 수여식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임영호)는 6월 17일 토요일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앙 다블뤼 한인천주교회에서 춘계 야유회, 총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비로 인해 뉴튼 어번 데일 파크(Aubundale Park, Newton)에서 실내로 장소가 변경되었지만, 쌀쌀하고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1950 학년부터 2010년 이후 학번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동문, 장학금 수상자 및 가족 70여명이 참석하여 한식 뷔페 식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교가제창으로 시작된 정기총회에서는 퇴임하는 임영호 20대 회장의 인사말과 21대 최진민 회장 소개, 차기 정해원 청년모임 관악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참석한 동문들은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21대 차기 회장 후보 최진민 동문

의 인준과 신임이사, 연임이사 인준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점심식사 후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김은한, 김동희, 윤상래 자문이사와 김유경 전화장에 대한 감사장을 증정했다.

점심식사 전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예년보다 많은 총 1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팬데믹 이후 작년부터 재개된 장학사업은 김광수 장학위원장과 이현구, 신진우 위원들의 활발한 모금 활동으로 많은 동문들의 호응은 물론 기업이나 단체, 이름의 기부자들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았다. 늘어난 기부금으로 예년에 비해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었다.

고 이재신 동문가족의 통큰 기부로

도에 오른 동창회 장학사업은 매해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국계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작년 장학생 대표이자 최근 노스웨스턴 대학교 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김준수 박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올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각 후원자로부터 장학증서와 2천달러에서 3천달러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다음은 장학생과 후원자 명단이다.

전주현(Bedford High School)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영인(Wilbur Cross High School) - 이명진 변호사 사무소  
 이세인(Concord-Carlisle High School) - 윤희경  
 선우리안(Medford High School) - 이의인, 신상철  
 류한나(Wellesley College) - 박영철, 이재신 기금  
 김우연(Yale University) - 정선주, 이재신 기금  
 차문태(Harvard Business School) - 이재신 기금  
 오정석(MIT) - 이희규  
 권영수(Harvard Law School) - 이희규, 장용복  
 오인환(Boston College) - 김제호, 윤상래, 윤용훈, 임효순  
 김유나(New England Conservatory) - 김용구, 이강필, 보스톤한미예술협회

## 한문수 교수, 유공 정부 포상 국민포장 수상

재외동포청이 웹사이트에 공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라셀대학교와 노스 쇼어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한문수씨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유공정부포상인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재외동포청은 출범과 더불어 첫 번째 공지로 '제16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월드코리아에 따르면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 명단은 세계 한인의 날 기념일 전후로 발표되지만 지난해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2년 후보 명단에는 총 153명이 올랐으며 이중 한 교수를 포함한 87명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6회 포상자 중에 국문훈장 무궁화장은 송창근 재인도네이사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수상했다.

한 교수는 20년 이상 미국에서의 경제학 교수로서 "한국 경제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독도와 동해"에 관한 강연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기여하고자 강연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한국을 알리는 평화 공공의 교를 해 오고 있다. 또 뉴잉글랜드 보



스턴 한인회 수석 부회장, 평통위원으로 유학생과 한인의 교류증진, 한인 동포 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받았다.

한 교수는 "부족한 제가 국민포장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 이라고 말하고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추진했던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늘 함께 해주시는 민주평통 위원님들과 한인회 그리고 보스톤 영사관의 총영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전했다.

editor@bostonkorea.com

# 면역력 재충전

##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J.K. PLUMBING & HEATING

##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 978.303.7000

#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 섬너터널 7월부터 2달간 보수공사로 폐쇄, 불편 초래할 듯

## 교통부, 7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2달간 전면 폐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섬너터널(Summer Tunnel)이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달여간 전면폐쇄 돼 교통혼잡은 물론 노스앤드, 이스트보스톤, 사우스보스톤 등의 주민들을 비롯 많은 공항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섬너터널 복구공사 진행을 위해 2개월동안 전면 폐쇄될 것이라고 밝히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보스톤과 이스트보스톤간 페리를 무료로 제공하며, 커뮤니티레일, 주차, 통행료 등을 할인할 계획이다. 보스톤 항구 지하로 이어진 섬너터널은 89년 동안 공항과 이스트 보스톤에서 노스터널을 잇는 핵심 터널이었다.

지나 피안다가 교통부 장관은 “섬너터널의 폐쇄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과 근로환경, 통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고 밝혔다.

섬너터널이 폐쇄되면 이스트보스톤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소음과 공해도 늘 것이라고 말하고 사우스



보스톤과 다운타운에는 테드 윌리엄스터널로 우회 차량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한인들의 경우 공항에서 방문객을 태워서 나올 때에는 이스트 보스톤쪽을 통해 운행하거나 테드 윌리엄스터널로 우회해야 한다.

섬너터널은 지난해 금요일부터 월요일 새벽 5시까지 주말에만 폐쇄했다. 올해 당초 5월부터 9월까지 주 7일 전면 폐쇄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었으나 비교적 공사기간은 짧아졌다.

이번 공사를 통해 교통부는 터널의 천정을 교체하고, 둥그런 아크를

수리하며, 터널테크교체, 도로표면 포장등을 시행한다. 또한 터널 벽을 수리하고 방화패널을 설치하며 조명등을 교체한다. CCTV, 각종 유틸리티 관, 케이블 등도 수리한다.

섬너터널은 1934년 개통 돼서 이스트보스톤과 로건국제공항을 보스톤 다운타운으로 잇는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이스트보스톤쪽에서 보스톤 다운타운으로 일방 통행 터널로 사용되고 있다. 1961년에 개통된 칼라한 터널은 반대로 노스앤드에서 이스트보스톤과 공항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 도로다. 칼라한 터널은 2014년 보수공사를 위해 2달 반 동

# 보스톤 산악회 여름 정기산행

## 7월 1일 토요일 가필드 마운틴(Mt. Garfield)으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가 뉴햄프셔 소재 가필드 마운틴(Mt. Garfield)으로 7월 1일 토요일 정기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은 A조 왕복 9.6마일의 트레일을 타며 산행시간은 6-9시간으로 난이도는 5척도단계중 4로 높은 난이도다. 마지막 0.2마일이 가파른 산행이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물, 중식, 스틱(Trekking Poles), 방풍의, 우의, 모자, 등이며 회비는 \$20이다. 면으로 된 티셔츠 청바지 등은 착용해서는 안되며 모기약, 장갑 등을 준비해야 한다. 배낭은 뒤로 넘어질 때 보호

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착용하는 것이 좋다.

집결지는 뉴햄프셔 93번도로 출구 2번 Park&Ride이고 7시까지 집결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6월 29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불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산악회는 “정상에서 바람이 거세고 기온 변화가 매우 심하니 장갑과 따뜻한 바람막이 모자 달린 자켓을 꼭 준비 하기 바란다” 고 밝혔다.

신청 및 기타 문의는 617.780.9588(들꽃향기)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안 폐쇄된 바 있다.

다음은 폐쇄 기간동안 교통부가 실시하는 교통편 할인 내역이다.

MBTA 블루라인-양방향 모두 무료, 배차 증편, 모든 블루라인 주차장 하루당 \$2 우드아일랜드 스테이션 인근 무료 주차장 추가

이스트보스톤페리-이스트보스톤 페리 무료(보스톤 롱와프와 이스트 보스톤 루이스몰(Louis Mall) 연결 커뮤니티레일-샬럼, 스왈스카트 커뮤

터레일 운임 Zone1A(\$2.40) 샬럼, 스왈스카트 주차장 하루 \$2.00, 샬럼 북쪽의 모든 커뮤니티레일 주차장 무료

린 페리-린의 블러섬 스트리트 다에서부터 보스톤 센트럴 와프까지 운행. 린 시가운영하는 주차장 무료 Zone1A(\$2.40) 운임

로건 익스프레스-공사기간동안 온라인으로 티켓 구입시 25% 할인. 17세 이하 무료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좋은치과, 좋은치아**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존세 상담  
■ 회계정리

마면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20여만명 신규 운전면허 신청, RMV혼잡 예상

▶▶1면에 이어서

면허증 발급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신청자들이 대거 몰려 매사추세츠차량등록국(RMV)에는 긴줄이 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RMV는 신규법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의 직원을 50% 늘렸으며 WFMA건만 상담하는 전용 문의를 만들어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센터의 직원도 50% 늘려 운영시간을 저녁까지 늘리고 대부분의 지점에서는 토요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시험 시험 진행요원도 2배로 늘렸고 시험장소와 시험 시간도 늘렸다.

차량등록국 콜린 오길비 국장은 20일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RMV는 직장 및 가족 이동법(Work and Family Mobility Act) 시행과 더불어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신규 신청자들의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은 불법이민자들도 다른 일반 주민과 똑 같은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신청해, 수수료를 지불하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RMV에 운전면허 취득 신청, 즉 러너스퍼밋( 연습허가, Lerner's permit)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출생 증명), 소셜시큐리티 상태 증명, 거주 증명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인들 중 미국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 RMV는 신분 증명으로 한국 여권 또는 한국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증, 본인출생증명 등을 번역해 인증(Certified)한 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글 문서는 반드시 영어로 번역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기관은 영사관, 한인회 등 비영리기



주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길비 차량등록국장

관, 이중언어 공증인(Notary public) 인 변호사, 회계사 등이 될 수 있다.

윤성근 동포담당영사는 보스턴 총영사관의 인증과 관련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운전면허증, 주민증의 경우 본인이 번역해서 가져오면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가 없는 한인들은 소셜시큐리티(SSN)미 발급진술서(Affidavit of No SSN)를 작성해가서 차량등록국에서 등록시 서명하면 된다. 진술서는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거나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콜린 오길비 국장은 "준비서류를 꼼꼼히 점검해서 미리 시간을 예약하고 RMV를 방문해야 한다. 단 한 가지 서류라도 미비한 경우 또 긴 하루를 RMV에서 소모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취득을 위해서는 러너스퍼밋 예약을 차량등록국(MASS.GOV/RMV)에서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해야하고 도로주행시

험 일정 예약도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해야 한다.

RMV와 법무부는 이민자들을 속이는 많은 사기가 횡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매사추세츠는 차량등록국(RMV)이라고 하며 뉴욕 등 일부 타주처럼 DMV라 칭하지 않는다. 또한 웹사이트와 서류에는 주정부의 마크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구비한 채로 운전해 도로가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사고시 보험이 미비한 관계로 주로 줄행랑을 치곤 했었다.

주 의회는 2022년 WFMA법을 통과시켰으며 당시 찰리 베이커 주지사를 이 법을 거부하자 거부권을 뒤집고 다시 법안을 재가결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중심이 된 연합세력이 이를 주민투표안에 부쳤지만 54%의 찬성표를 득표하면서 시행되게 됐다.

주정부는 이법의 시행으로 약 20만

# 보스톤 집값 사상 최고가 기록

5월 단독주택 중간가격 처음으로 \$90만 달러 도달

▶▶1면에 이어서

물가품으로 구매 경쟁을 격화시키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 나온 집이 없다면 매물이 나오면 복수의 오퍼가 들어가게 된다.

프레디 맥(Freddie Mac)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0년 모기지 고정금리는 평균 6.5%에서 머물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에 비해서 한참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수준의 모기지금리 하에서는 과거 2-3% 금리의 모기지를 소유한 주택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심지어 집을 내놓는다 해도 구입할 주택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올 봄 들어 일부 매물의 증가로 지난 4월에 비해 5월 주택 판매는 35.5% 증가했지만 지난해 5월에 비해서는 24%나 줄었다.

소차회장은 새로운 주택 매물은 구매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집값과 적은 매물은 주전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매사추세츠부동산 중계인 연합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매물은 지난해에 비해 19% 줄었으며 주전역의 집값은 \$16,000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올랐다.

hsb@bostonkorea.com



명의 새로운 운전면허 신청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전면허 갱신, 등록증 갱신 등 RMV를 이용해야 하는 한인들은 가능하면 7월

전에 업무를 예약해 처리하거나 온라인으로 이를 처리해 혼잡을 피할 수 있다.

editor@bostonkorea.com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적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o@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 체크사기 급증, 우편발송시 극히 주의해야

### 지난해 체크사기 68만건 보고 2021년에 비해 두배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체크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당국은 스몰비즈니스나 개인들은 체크를 발송시 안전에 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680,000건에 달하는 체크사기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 2021년 350,000건에서 두배 가량 증감한 것이다. 한편, 미 우체국감사서비스는 약 30여만 고객 도난 신고를 2021년에 접수했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두배에 달한다.

팬데믹 초기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코로나 지원 경기부양 수표가 범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체국과 은행은 체크를 발송시에는 반드시 우체국 내 우체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제수단을 크레딧 카드로 대체함에 따라 체크의 사용은 감소하고 있지만 2022년에만 미국에서는 34억달러의 체크가 사용됐다. 그러나 평균 체크 사용금액은 1990년 673달러(현재 \$1652가치)에서 2022년 2652달러로 증가했다.

체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스몰비즈니스다. 뉴욕에서 홍보회사 피시탱크(FischTank PR)를 운영 중인 에릭 피시그런드의 경우 지난 3월 발행했거나 받아야 할 체크 15개가 도둑을 맞았다. 이중에서 10개의 체크는 이미 현금화 되어 버렸다.

피시그런드는 한번도 매월 돈 지

불을 빠뜨린 적이 없는 고객을 통해 4월이 되어서야 3월에 없어진 체크를 알게 됐다. 우체국은 이를 조사한 후 피시그런드는 약 70%를 받게 됐으나 일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지금껏 한번도 이 같은 체크 사기와 관련된 문제를 겪은 사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그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자결제만 받는다는 조건을 첨부했다.

현재의 체크사기는 결코 소규모 운영조직이 아니다. 정교한 범죄조직으로 우체국우통센터에 잠입하는 참가자를 비롯해 가짜 사업체, 가짜 신분증으로 체크를 디포짓한다. 일부는 은행에 직접 찾아 들어가 체크를 현금화하며 이를 훈련하기도 한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750명의 체크를 도용 5백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6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범인들은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훔쳐 이중에 체크가 들어있는 우편물들을 열어 체크와 기타 정보를 획득한다.

가장 일반적인 체크 사기는 체크 위상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금액을 바꿔서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이다.

일부는 체크에서 얻어진 정보를 모아 새로운 크레딧 라인을 개설하거나 사업체를 열기도 한다. 때로는 기존의 계좌 정보를 통해 새로운 체크를 개설하기도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체크를 메일을 통해 보내는 방법을 기피

하거나 체크를 반드시 우체국의 우체통을 통해 발송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신의 집 우편통에 체크가 들어있는 메일을 넣어 두고 빨간 플래그를 올려 우체부들에게 이를 알리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우체국 안에서 발송해야 한다” 고재정데이터 회사의 토드 로버트슨은 말했다.

은행들도 이 문제를 아주 잘 인지하고 있다. 모바일 체크입금 서비스와 지점에서 사기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체크 번호를 살피게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큰 금액이 써져 있는 경우 이를 주의깊게 살피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당 체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별하고 있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실수했을 때 고객들에게 수일만에 이 금액을 변상하지만 체크 사기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몇 달이 걸려야 이를 변상하기도 하고 있다. 지난 3월 3명의 민주당 의원은 은행업계에 체크 사기 피해자에게는 빠르게 변상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hab@bostonkorea.com



## 해안경비대 "타이태닉 관광나섰던 잠수정 탑승 5명 전원 사망"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해안경비대는 22일(현지 시간) 대서양에서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 탑승자 5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안경비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타이태닉호 침몰 지점 인근인 해저 1천600피트(약 488m)에서 잠수정 선미 덮개 등 잔해를 발견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해안경비대는 잠수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잠수정에는 오션게이트 익스

페디션 최고경영자(CEO) 스톡턴 러시와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쉬 하딩, 프랑스 국적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파키스탄 재벌 사자다 다우드와 그 아들 술레만 이 타고 있었다.

잠수정 운영업체 오션게이트도 성명을 통해 타이탄 탑승자 5명의 사망사실을 확인했다.

타이탄은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저에 가라앉은 타이태닉호 잔해를 보러 18일 오전 심해로 내려갔다가 실종됐다.

koman@yna.co.kr

## 기사 제보를 환영합니다 617-254-4654

###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1.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6.1 ~ 2025.5.31) → 2. 신청서 접수 및 서류심사 → 3. 신청서 접수 → 4. 신청서 접수 → 5. 신청서 접수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4·3관련원 행정 신청서제외 외거 신청)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4. 6. 30	2024. 7. 1 ~ 2025. 5. 31
2차	2022. 12. 31	2023. 6. 30	2024. 6. 30	2025. 5. 31
인원	2,117명	2,500명	2,500명	2,500명
잔액	2,117명	2,500명	2,500명	1,703명 + 0

- 희생자의 사실상과치 관계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령 사본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5차)에 신청함
- 특정부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5차 추가신청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신청 후 신청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제주4·3위령회회원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제외 신청서제외 대상자 포함)

청구기간: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청구서(신청서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서(신청서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청구인의 공증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세외소득: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거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신청)
- 국외국거주: 여권 및 국외거주 신분증 사본
- 해외소득금 증명서: 해외 소득금 증명서(신청서 별지 제7호의4서식)
- (대리인 신청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III. 신청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7호의4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신청서)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공과금: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거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신청)
- 국외국거주: 여권 및 국외거주 신분증 사본
- 국외소득금 증명서: 해외 소득금 증명서(신청서 별지 제7호의4서식)
- 해외소득금 증명서: 해외 소득금 증명서(신청서 별지 제7호의4서식)
- (대리인 신청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IV. 신청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7호의4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신청서)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공과금: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거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신청)
- 국외국거주: 여권 및 국외거주 신분증 사본
- 국외소득금 증명서: 해외 소득금 증명서(신청서 별지 제7호의4서식)
- 해외소득금 증명서: 해외 소득금 증명서(신청서 별지 제7호의4서식)
- (대리인 신청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1·3지청) ☎ 130-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청)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송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청과 (보상지청) ☎ 82-64-710-8450, 710-8541~6
- ☎ 63122 제주시 분원(보안) 제주도청 4·3지청과 (보안·행정)

요가송의 5분요가

유튜브 검색창에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 뱃살걱정 그만! 매일 5분 이것만 해보세요



여성들의 경우 30대 후반에서 40대가 되면서 부쩍 뱃살이 더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중년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살이 쉽게 찌고 유독 배나 옆구리에 군살이 붙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줄고 동시에 신진대사량이 떨어지면서 몸이 소모하는 에너지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먹는 양이 크게 늘지 않아도 쉽게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이 ‘나잇살’ 그중에서도 제일 빼기 힘든 ‘뱃살’은 건강한 식단과 함께 꾸준한 운동이 병행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감량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 2-3회는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해주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복근 운동도 주 3회 이상 함께 해주신다면 이제 더 이상 뱃살 나잇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1. Bird Dog - 코어 강화, 밸런스 강화, 척추 교정  
 1단계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댄 네발기기 자세에서 오른 팔과 왼팔을 동시에 앞뒤로 뻗어 줍니다.  
 2단계 허리를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하며 이

2. Knee Tucks + Variation - 아랫배 뱃살 감량, 다리 슬리밍 효과  
 TIP!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를 등쪽으로 강하게 끌어 당기고 손과 발이 최대한 중심부에서 떨어지게 뻗어주세요.



3. Kneeling Push Ups - 상체 근력 향상, 팔과 어깨 라인 정리  
 1단계 두 손을 어깨 밑에 내리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보내 푸쉬업 준비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천천히 내쉬는 숨에 가슴을 두 손 사이로 내리고 들숨에 다시 올라옵니다.  
 3단계 첫 두 단계를 반복하고 중간에 휴식이 필요하면 엉덩이를 뒤로 보내 반 아기자세를

TIP! 숙련자들은 2세트부터 다리를 천 정쪽으로 길게 뻗는 변형동작을 함께 진행해 강도 높여주세요.



4. 4단계 무릎을 떼고 할 수 있다면 플랭크 자세에서 몸을 일자로 유지하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TIP! 복부를 단단히 조이고 수축한 상태로 해야 어깨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4단계 무릎을 떼고 할 수 있다면 플랭크 자세에서 몸을 일자로 유지하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을 시도해보세요.

TIP! 복부를 단단히 조이고 수축한 상태로 해야 어깨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하연샘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 요가&필라테스

- \*\*\*ZOOM 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 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leeins@gmail.com | ml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방법

## We Can Do This COVID-19 공공교육 캠페인

따뜻한 날씨를 만끽하고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며 긴 낮을 즐길 수 있는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더운 계절에는 야외 활동에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음 안전 도움말을 준수하여 즐겁고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십시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세요.** 햇볕을 받으며 즐겁게 지낼 때 언제나 보호 조치를 마련하십시오. 해가 강한 날에는 그늘을 이용하여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고 햇볕에 탈 위험을 줄이십시오. 챙이 넓은 모자는 해로운 자외선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야외에 나가기 20분 전에 스펙트럼이 넓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최소 SPF 15 이상의 선크림을 고르시고 수영하거나 땀을 흘리거나,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면 2시간마다 다시 선크림을 바르십시오.

**벌레에 대비하십시오.**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울 때 벌레 퇴치제를 준비하십시오. 날씨가 따뜻하면 벌레도 많아져 성가실 수 있습니다. 모기 및 진드기(tick)와 같은 벌레들은 질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높이 자란 풀이나 나무가 빽빽한 숲에서 시간을 보내신다면, 소매가 긴 셔츠와 긴 바지를 입어서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옷과 몸, 애완동물에 진드기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활동적으로 지내십시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동

적으로 지내는 것이 중요하며, 여름은 활동적인 생활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수영이나 캐치볼, 동네 산책이든 매주 15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많은 사람이 150분의 시간을 주 5일 하루 30분으로 나누어 활동합니다. 본인의 일정과 생활방식에 맞게 활동하시면 됩니다. 신체활동은 몸을 건강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드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키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하루 64온스 이상의 물을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스포츠 음료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시간을 보낸 후 중요한 전해질을 보충하도록 도와줄 수 있으나 설탕 함량이 높으므로 주의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감기와 독감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지만, COVID는 일 년 내내 위협합니다. 이미 백신을 접종했지만, 최신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특히 여행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노



인들과 시간을 보낼 계획이면 최신 백신 접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면 두 가지 종류의 COVID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능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COVID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최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사람들은 여름철 계획을 세울 때 COVID를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싶어 합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Memorial Hermann 심장병 전문의 Dr. Peter Chang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COVID는 아직도 우리 생활의 일부이며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COVID가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무료 백신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www.vaccines.gov](http://www.vaccines.gov)를 방문하십시오.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

# 미국인 걱정도 양극화... '최대 골칫거리' 두고 물가 vs 총기폭력

### 퓨리서치센터 설문...인플레이션·의료·정쟁·총기폭력 지목 세부항목 인식 보면 민주·공화 '같은세상 다른고민' 확인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제 미국 사회의 양극화 심화 속에 지지 정당에 따라 고민도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조사전문업체 퓨리서치센터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 의료 접근성, 정치 갈등, 약물 중독, 총기 폭력 등을 미국의 '매우 큰 문제'로 꼽았다.

세부 조사항목을 보면 집권당인 민주당, 야당인 공화당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랐다.

인플레이션을 '매우 큰 문제'로 지목한 이들의 비중은 공화당 지지자가 75%였으나 민주당 지지자는 52%였다.

마찬가지로 총기 폭력이 '매우 큰 문제'라고 답변한 이들의 비중은 민주당 쪽에서 81%였으나 공화당 쪽에서는 38%로 차이가 났다.

민주, 공화 진영의 이 같은 인식 격차는 기후변화에서 64%와 14%, 불법 이민에서 70%와 25%, 인종차별에서 55%와 14%, 연방정부 재정적자에서 39%와 72% 등으로 갈라졌다.

같은 사회를 살면서 중대 골칫거리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은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대표하는 양대 후보가 맞붙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선명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한 쇼핑물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2%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치 가능성 자체를 미국이 겪는 '매우 큰 문제'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가 각각 63%, 62%로 비슷한 수준에서 중대 문제로 인식하는 사안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따질 때 미국의 중대 문제로 많이 지목된 사안의 순위는 인플레이션(65%), 의료 접근성(64%),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치 능력(62%), 약물중독(61%), 총기 폭력(60%), 폭력 범죄(59%) 등이었다.

퓨리서치센터는 전반적 추세에 대해 "경제정책, 범죄, 불법 이민에서

공화당에 동의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러 다른 문제에서 우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35%로 작년 조사와 비슷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65%였으나 공화당 지지자에게서는 그 비율이 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에 있는 표본 5천115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jangje@yna.co.kr



## 미국 5월 집값, 11년 반만에 최대 폭 하락...매매건수는 소폭 증가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의 집값이 1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은 5월 기준주택 중위가격이 39만 6천100달러(약 5억1천500만원)로 전년 동기보다 3.1% 하락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앞서 3월과 4월에는 2012년 1월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한 바 있다.

북동부와 중서부에서는 계속 집값이 오른 반면 남부와 서부 지역의 침체가 전체 집값을 끌어내렸다고 NAR은 전했다.

다만 전월 대비로는 집값이 석 달 연속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보다 0.2% 증가한 430만 건(연율

으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425만 건)를 상회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매매 건수는 20.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집값이 높은 수준인데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상승과 매물 부족이 더해지면서 거래가 침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책 모기지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평균 6.69%로, 전주(6.71%)보다는 소폭 내려갔지만 전년 동기(5.78%)보다는 거의 1% 포인트 높았다.

로런스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가 주택 매매 시장의 향방에 무거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유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유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박성진**  
• 20여년 수술진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1. 유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시(나인)/안경처방/타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인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각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시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구조종 / 시신경암 / 기타 필요검사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3. 4050 노인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람을 통한 예약시 특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람안과**  
\*무선전화(Call for Free)  
1-888-00HURAM(1-888-364-8723)  
070-3459-4040 D:huramkorea  
huram@huram.io www.huramkorea.com

# "돌이켜보니 자살미션 같았다" 가슴 쓸어내린 잠수정 탑승자들

## 2021년 전기문제로 잠수 취소되기도... "돌덩이가 돼서 가라앉는 느낌"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대서양에서 실종된 타이타닉 관광용 잠수정의 수색 작업이 더더 참사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 잠수정을 타본 승객들이 위험천만하고 아찔했던 여행 경험담을 공유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1년 문제의 잠수정 '타이탄'에 타본 독일인 탐험가 아르투어 로이블(60)은 독일 빌트지와 인터뷰에서 당시 탐험에서 살아 돌아온 것은 매우 운이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처음 잠수정에 탔을 때 전기 문제로 선체에 고장이 나 잠수가 취소됐었다"라며 "잠수에 성공했을 때 도 전기 장치 고장으로 예정 시간보다 다섯시간이나 늦게 잠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잠수정이 하강할 때 균형을 잡는데 쓰이는 '안정화 튜브'의 브래킷이 선박에서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를 케이블 타이로 묶기도 했다고 로이블은 덧붙였다.

그는 "돌이켜보면 그건 자살 미션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잠수정을 타고 심해에 내려갔을 때 잠수정 회사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최고경영자(CEO)인 스

토크턴 러시와 프랑스 국적의 잠수정 조종사 폴-앙리 나르젤렛도 동승했다고 로이블은 전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실종된 잠수정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작가이자 제작자로 유명한 마이크 리스(63)는 작년 7월 잠수정을 탔다.

그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잠수정을 타고 해저로 내려가는 과정은 한 시간 반 동안 돌덩이가 돼서 가라앉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잠수정이 타이타닉 잔해로 향할 때 해류에 의해 경로를 이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나침반이 매우 이상하게 작동했고, 잠수정이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460m가량 떨어진 곳에 있기도 했다고 한다.

잠수정은 바닷속에 3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는데 당시 일행은 겨우 20분 정도 타이타닉 잔해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고 리스는 말했다.

잠수정에는 세탁기 문에 달린 창문과 같은 크기의 선장이 하나밖에 없었고, 리스는 당시 이 창을 통해 타이타닉 선체를 구경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18일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

잠수정이 실종된 이후 뒤늦게 선체의 여러 안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몇만원짜리 게임용 무선 컨트롤러로 잠수정을 조종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NYT는 2018년 잠수함 산업 업계 관계자들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에 서한을 보내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회사의 실험적인 장비는 사소한 오류에서 큰 참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잠수정 타이탄은 18일 오전 대서양에서 실종됐다.

미국해안경비대는 수중탐색장비를 동원해 잠수정 수색에 나섰다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 해수부 장관 만난 자갈치시장 상인들 "장사 안된다, 살려달라"

조승환 장관, 수산물 시식하며 "안심해도 돼"...사재기 손님 설득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매출이 한 40%는 떨어졌어요. 이 유명한 자갈치 시장에 손님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22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 한 상인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 시장을 방문하자 "장관님, 좀 살려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수산물을 구매하면 비용을 환급해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홍보하려고 자갈치 시장을 찾았다.

조 장관을 마주친 다른 상인은 "아직 마수결이도 못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고, 조 장관과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한 상인도 "친구야, 손님이 없다"며 하소연했다.

조 장관은 자갈치 시장에서 수산물 사재기를 하는 손님 김모씨를 우연히 맞닥뜨리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씨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동생과 함께 수산물을 미리 사서 냉동실에 보관하기 위해 이날 시장을 찾았다.

김씨의 카트 안에는 미역국 등에 쓸 조개, 키조개, 미더덕이 이미 6만5천원어치 들어가 있었고, 그는 "시장을 둘러보며 수산물을 더 살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일염 20kg짜리 2포대와 마른미역, 마른멸치 등은 이미 사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김씨에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면서 "이미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이 지금의 1천 배 정도 뿌려졌는데, 지금까지 12~13년간 계속 테스트해도 우리바

다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도 1년 내내 생선을 드셔도 기준치 방사선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바나나를 먹어도 방사성 물질이 있는 것처럼 아무런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수산물을 시식하며 만나는 상인과 손님들에게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유인물을 나눠줬다.

조 장관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소비량 자체를 데이터로 볼 때는 크게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 현장에서는 (소비 감소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분들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면서 "일차적으로 소비 위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수산물 산지에서 물량이 소화되지 않을 경우 수매 비축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방어하고, 어민들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자금이나 재정 금융적인 지원책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방사능 검사 속도를 올려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 검사를 완료하는 안심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조업지에서 시료를 먼저 채취해와서 검사하든지, 선박이 밤에 산지시장으로 들어오면 새벽에 위판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사를 마친 후에 유통되도록 하겠다"면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이나 장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2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수산물을 시식하고 있다.

## 조규홍·지영미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 맞으면 마실 수 있다"

"정부입장은 과학적 판단하고 국제기준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음용 기준을 충족하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기준이 맞으면 먹겠다고 했는데 마실 수 있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총리가 말씀하신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을 충족한다면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

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 의원이 '낮은 노출이라 해도 만성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체내에 축적될 것도 고려하느냐'고 계속 묻자 조 장관은 "누적돼도 몸에 괜찮은 것이라고 해서 음용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대답했다.

조 장관은 "안전성 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단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처리된다면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여부에 대한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오유경 식품

의약품안전처장도 마실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 청장은 "총리님, (복지부) 장관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면서 "우리 국민이 해수를 마실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 총리와 조 장관은) 과학적으로 처리돼서 기준에 적합하다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는 질의에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우리 기준, WHO 음용 기준은 1만 베크렐(Bq)"이라며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변바 있다.

bkkim@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JUNE 23rd - JUNE 29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 K-BBQ'S BBF, BEST BANCHAN FRIEND, SCALLION SALAD

It's officially grilling season, and no K-BBQ is complete without some scallion salad! Easy to throw together in minutes, choose between a sweet soy sauce version, or a peppery one with a slight kick! 바베큐의 계절!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파채무침을 H 마트와 함께 두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보세요!



<b>Honey Ataulfo Mango</b> 헤니 아보포 망고 BOX <b>\$12.99</b>	<b>Packed Garlic</b> 짜마늘 5 PCS/PKG <b>\$1.99</b>	<b>Kabocha</b> 단호박 LB <b>\$1.49</b>	<b>Fuji Apple</b> 후지사과 LB <b>\$1.99</b>	<b>White Peach</b> 백도 GIFT BOX <b>\$29.99</b>
<b>ZESPRI SunGold Kiwi</b>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 BOX <b>\$24.99</b>	<b>Hass Avocado</b> 헤스 아보카도 EA <b>\$0.99</b>	<b>Ginger</b> 생강 LB <b>\$2.99</b>	<b>PULMUONE Tofu</b>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b>\$3.99</b>	<b>Sweet Potato</b> 고구마 LB <b>\$2.49</b>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b>Fresh Beef Top Blade Steak</b> 생소 부차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b>\$8.99</b>	<b>Fresh Beef Tenderloin</b> 생소 안심 WHOLE/LB <b>\$9.99</b>
<b>Fresh Pork CT Butt Steak</b>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SLKED/LB <b>\$6.99</b>	<b>Fresh Chicken Drumstick</b> 생 닭다리 LB <b>\$0.99</b>
<b>Frozen Sliced Pork Single Rib Belly</b> 냉동 돼지 삼겹살 FAMILY PACK/6 MM/LB <b>\$6.99</b>	<b>Marinated Pork Single Belly</b> 양념 돼지 삼겹살 LB <b>\$5.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Frozen Squid</b> 동해산 선동 오징어 PRODUCT OF KOREA PREMIUM/LB <b>\$5.99</b>	<b>TONGTONGBAY Bok Kum Anchovy</b> 통통배 묶음멸치 PRODUCT OF KOREA 1 LB/PKG <b>\$15.99</b>
<b>Frozen Norwegian Mackerel</b> 노르웨이산 고등어 400-600 S/LB <b>\$1.99</b>	<b>Seasoned Roasted Himego</b> 히메고 (매콤한맛) SPICY/LB <b>\$15.99</b>
<b>TONGTONGBAY Frozen Premium Mixed Fish Cakes</b> 통통배 도마살 모듬어묵 2 LB/PKG <b>\$6.99</b>	<b>Fresh Salmon Fillet</b> 연어 필렛 LB <b>\$9.99</b>

### SMART CARD MEMBER ONLY

<b>ORGANIC FARM Organic Mixed Grains 10</b> Different Kinds of Grains 유기농장 유기농 건강혼합 10곡미 12 LB <b>\$35.99</b>	<b>RAW NATURE Cooked White Rice</b> 자연담은 자연미 흰쌀밥 7.4 OZ X 12 EA/BOX <b>\$9.99</b>
<b>KADOYA Pure Sesame Oil</b>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b>\$16.99</b>	<b>GOMPYO Co-Brand Frying/Korean Pancake Mix</b> 골프 튀김/부침 가루 2.2 LB <b>\$2.49</b>

<b>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b>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b>\$16.99</b>	<b>MONGSHIM Shin Noodle Soup</b> 농심 신라면 4.23 OZ X 4 EA/PKG <b>\$4.49</b>	<b>JINGA Beef Bone Flavored Soup</b>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b>\$10.99</b>	<b>HAIO Ume Plum Syrup</b> 해오름 매실청 24.35 FL OZ <b>\$6.99</b>	<b>CJ Bibigo Crunch Chicken with Sweet &amp; Spicy Soy Garlic Sauce</b> CJ 비비고 순살 양념/간장마늘 치킨 1.13 LB <b>\$7.99</b>
<b>JONGGA Authentic Korean Cold Noodles</b> 종가집 합흥식 비빔/평양도식 물냉면 SPICY SAUCE/ BEEF-BASED BROTH 13.4 OZ <b>\$3.99</b>	<b>HANSANG Seasoned Small Octopus</b> 한상 동우 얼향 푸꾸미 1.43 LB <b>\$14.99</b>	<b>HAIO Canned Mackerel Pike</b> 해오름 공치 동조림 14.1 OZ <b>\$2.99</b>	<b>HAI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b> 해오름 막국수 5 LB <b>\$4.99</b>	<b>HAIO Red Pepper</b> 해오름 태양초 고춧가루 COARSE/FINE 2.2 LB <b>\$7.99</b>
<b>MIRKWANG Korean Style Popcorn</b> 미광 돌아온 할그리 킹넵이 5.99 OZ <b>\$1.99</b>	<b>HAIO Bravo Ice Cream Cone</b> 해태 브라보콘 VANILLA/MILK 5.07-5.41 X 5 EA/PKG <b>\$8.99</b>	<b>Clear Utensil Case</b> 투명 사각 수저함 BEIGE/GREEN \$5.49 <b>\$3.99</b> EA	<b>KOTO Glass Jar</b> 코토 유리 과일주병 1L <del>\$11.99</del> 5L <del>\$14.99</del> <b>\$7.99</b> <b>\$9.99</b> EA	<b>PAWIE Antibacterial Cutting Board</b> 파비에 슬러지제균 항균 양면 대도마 (일본형) 24 X 39 CM <del>\$8.99</del> <b>\$5.99</b> EA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Flavorful Apples, Korean Hot Peppers, Delicious Cabbage...  
Just Some of the many better ingredients that make our TOBAGI Kimchi the one you crave. Find it exclusively at H Mart.  
한국인의 자존심, 로바기 김치! 우리 전통의 맛을 경험하세요!



**CUSTOMER SERVICE**  
1.877.467.736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MA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any postscript.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in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info@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a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b>이사 이 제 봉</b> DIRECTOR 781.654.5281 <small>jebeo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b>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mall>stev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팀장 한 준 희</b>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small>junh@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캐시 송</b>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small>cashs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크리스틴 손</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small>christi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매니저 신 보 경</b>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small>bo@bostonpremierrealty.com</small>
---	---	---	--	--	--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b>다이애나 김</b> 617.271.2007 <small>kdian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무리 김</b> 578.434.2043 <small>muri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니키 박</b> 617.447.0591 <small>niki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피터 박</b> 617.780.7835 <small>depeter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지나 최</b> 578.888.3248 <small>depeter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여 권 주</b> 401.935.3397 <small>yoonj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시라 파크</b> 617.888.5787 <small>sarapar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그레이스 김</b> 617.435.7713 <small>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현수 김</b> 617.588.8973 <small>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사 송</b> 213.303.0397 <small>miraso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키 파크</b> 413.507.1402 <small>miki@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순정 조</b> 617.913.3369 <small>sunj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최헌진</b> 617.877.0387 <small>heon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미영 김</b> 781.850.3412 <small>myeong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은혜숙</b> 781.899.1214 <small>ehsuk@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장은영</b> 617.315.1162 <small>j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호준</b> 617.543.5728 <small>jihoon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레이철 김</b> 617.852.7489 <small>raeilkim@bostonpremierrealty.com</small>
 <b>Tammy Woolfolk</b> 917.224.5610 <small>tamm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Nancy Wang</b> 617.230.9952 <small>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Shirley Zhao</b> 857.231.8316 <small>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Whyan Yu</b> 617.385.2718 <small>why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Xian Dole</b> 413.322.8979 <small>xia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u Jiang</b> 240.449.0117 <small>luji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ohn Tran</b> 617.408.9862 <small>joh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Rebecca Phu</b> 617.833.1083 <small>rebecc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chael Somma</b> 978.873.0376 <small>michae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nda Tu</b> 857.210.8890 <small>lind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Jun Wang</b> 649.276.2623 <small>jun@bostonpremierrealty.com</small>	 <b>Lily Wang</b> 617.338.7212 <small>lilyw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Crystal Wei</b> 413.208.0255 <small>crystal@bostonpremierrealty.com</small>	 <b>Angela Zullo</b> 774.288.8199 <small>angela@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제이코 김</b> 617.598.3409 <small>jeiko@bostonpremierrealty.com</small>	 <b>이상진</b> 857.280.0434 <small>isang@bostonpremierrealty.com</small>	 <b>Anthony Tran</b> 857.288.4659 <small>anthony@bostonpremierrealty.com</small>	 <b>Mira Delangre</b> 413.237.1586 <small>mira@bostonpremierrealty.com</small>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 "올 수능 어찌되나"...초대형 변수에 고3 교실 발칵

"킬러문항 없어도 '준킬러문항' 나올 것"...유불리 따지느라 분주 사교육 부담 완화엔 대체로 부정적..."더 일찍 발표했어야" 지적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당정이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입시의 최일선인 고등학교 교실은 크게 술렁였다.

6월 모의고사도 이미 끝나고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입시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는 갑작스러운 '초대형 변수'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늘 발표가 실제로 올해 수능에서 반영됐을 경우 유불리를 분주히 따지기도 했다.

경기도에 사는 고3 학생은 김모(18)군은 "수능이 150일 남았는데 친구들이 감도 못잡는 상태"라며 "킬러문항 배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로 변별력을 갖출 것인지, 준킬러 문항을 확 늘려서 '타입어택' 싸움으로 간다는 건지, 문제를 꼬아서 낸다는 건지 감도 안 잡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입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교육 의존도만 오히려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 최모(50)씨는 이날 "올해 수능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편차를 예상할 수 없으니 억울한 아이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험생 아들을 둔 임모(49)씨도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아들이 처음으로 대통령에 분개했다"며 "수능이 코앞인데 수험생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왜 했는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300만명이 가입한 수능 관련 커뮤니티 '수만취'에 2005년생(현 고3)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사교육 없애자는 의도는 알겠지만 지금 시점에 발표하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지난해 수능 끝나고 바로 알려 수험생이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했다. 수험생 입장에서 제대로 된 모의평가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9월뿐"이라고 지적했다.

성적이 상위권이 학생들 사이에 선 변별력 없는 수능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반수생'으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이모(27)씨는 "변별력이 약해져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도 낮은 표준점수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다만 초고난도로 나왔던 재작년 국어 과목이나 매해 과학탐구영역의 생명과학 과목을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찍기 싸움'이라 문제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3 딸을 둔 50대 김모 씨는 "인문계 학생인 딸이 특히 국어 성적이 좋은 편인데 대통령이 '국어 비문학'의 난도를 꼭 짚어 말해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겠냐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오늘 발표 뒤 교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느라 한동안 술렁였다"며 "킬러문항을 없애면 과연 수능의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교사가 많았다"고 전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1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3학년 학생이 마스크를 벗은 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킬러문항 배제가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고3 자녀를 둔 최모(53)씨는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능 난도 조절이 사교육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난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고득점에 대한 부담이 커져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이 떨어져 실력보다 실수가 성적을 좌우하면 최상위권 학생 중에서 재수생이 오히려 양산되고 사교육 시장은 더 활성화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수험생 학부모 김모(49)씨는 "킬

러문항이 없어도 '준킬러문항'이 좌우할 텐데 과연 사교육 시장이 없어질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수학에서 킬러문항이 없으면 상위권 대학은 물리2, 화학2 등 과학 과목에서 변별력이 생길 테고 이를 대비하려고 사교육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수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씨는 "요새 수능 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어려운 만큼 새로운 방향이 맞기는 하다"면서도 "어쨌든 '줄 세우기'를 할 텐데 대통령이 말한다고 바뀌겠느냐"고 말했다.

수만취에는 "킬러문항을 없앤다

고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9월 모의고사가 끝나는 날 학원에서는 '9월 모의고사 집중분석'이라고 또 모집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경향을 예측하는 설문조사도 등장했다.

수만취에 평가원이 어떤 수능을 내겠느냐는 질문에 이날 오후 2시 기준 '준킬러문항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응답이 77%(168표)로 우세했다.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23%(56표)였다.

sjc@yna.co.kr

rao@yna.co.kr

# 이규민 평가원장 전격 사임..."6월 모평 관련 책임지겠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19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내린 지 나흘만이다.

이 원장은 이날 평가원 보도자료 통해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나해 3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사임) 소식을 들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의 사임은 최근 윤 대통령이 최근 수능 출제 기준을 직접 언급한 뒤 수능을 5개월여 앞두고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한 가운데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교육 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라는 '공정 수능'을 지시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이 경질됐다. 이런 가운데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평가원장까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 논란을 언급하며 평가원에 대해 12년 만에 대대적인 감사를 예

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경질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은 물론 평가원장이 지난 정부 요직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왔다.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은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임명됐다는 점 때문이다.

평가원장의 중도 사퇴로 수능을 5개월여 앞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적은 적지 않지만 수능을 앞두고 모의평가 결과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12대 원장인 이 원장을 포함해 역대 평가원장 중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적은 1대, 4대, 7대, 10대 등 네 차례에 그친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퇴한 전직 원장 중 3대 이종승 전 원장, 5대 정강정 전 원장, 8대 김성훈 전 원장, 11대 강태중 전 원장은 모두 수능 출제 오류에 책임을 지고 수능 시행 이후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2대 김성동 전 원장의 경우 수능 출제 오류와는 상관 없이 한국 근현대사 검정교과서 편향기술 논란과

관련해 9월 사퇴한 바 있다.

6대 김성열 전 원장은 수능 출제 오류가 발생했으나 성적 통보 전 이 의심된 기간 바로 잠잠함에도 이듬해 임기를 3개월여 남기고 사퇴한 바 있다. 9대 김영수 전 원장은 수능 출제 오류 개월 만인 2017년 6월 뒤늦게 사퇴했다.

porque@yna.co.kr



#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톤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이 QR코드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보광고 수수료를 지원받고  
보내되었습니다.



오후 5: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오후 5:28

#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립 김규만 남이 재단인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 성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하느님이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46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du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u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심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Dry Cleaners for Sale

세탁소 매매 385K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세탁소 매매  
2Million 부동산포함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Watertown  
연매상 350K

**781.883.5984**

##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 보스톤 전망대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백제왕의 후손을 숭배하는 칸무천황

백제 25대 무령왕에게는 4명의 자손이 있었다. 첫째 아들 순타태자는 왜국에서 살다가 일찍 사망했고, 둘째 아들은 백제 성왕이고 셋째 아들이 사아(斯我)인데 게이타이 천황을 도와 주려고 왜국으로 건너갔다. 유일한 외동딸이 게이타이 천황의 황후가 된 수백향으로 모두 4명의 자손이 있었다. 큰아들 순타의 자손 중에 고야신립(高野新笠)이 49대 코닌(光仁)천황과 결혼했는데 그녀가 백제사람이라는 이유로 정실황후가 될 수 없었다. 그녀의 성은 아마토(和)씨였고 이름은 “나가사” 어였다. 백제의 오래된 기록에 의하면 먼 조상인 도모왕(주몽)이라는 사람이 하백(河伯)의 딸과 태양의 정기에 감응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화신립은 곧 그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주몽의 신화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입지가 미약했으며 그녀의 아들 칸무왕자도 백제 도래인이라는 이유로 차기 천황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칸무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세력이 있었다. 당시 도래인 가문들의 힘과 세력은 말 그대로 넘사벽 그 자체였다. 백년세도를 구가한 소가씨 백제가문, 그런 소가씨를 무너트린 또 다른 후지와라 백제 가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역전시킨다. 서기 784년, 칸무가 천황이 되기 3년 전에 나가오카교 건설책임자 후지와라노 타네즈구가 누구에게 화실을 맞아 암살되었다. 범인이 곧 잡혔는데 놀랍게도 칸무의 배다른 동생 사와라 친왕이었다. 사와라 친왕은 곧바로 퇴위되었고 유배 중에 항의하고 탄식하다 사망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후지와라 가문에서 기획한 모략극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정실 황후는 코닌 천황을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폐위되면서 고야신립이 황후가 되었고 칸무가 50대 천황이 되었다(781-806). 고야신립 황태후는 아들 칸무가 등극한지 8년 후인 서기 789년에 사망하였다.

칸무 천황이 즉위하고 곧이어 자연재해가 연달아 일어나고 칸무 주위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자 이것은 사와라 친왕의 저주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이에 칸무천황은 동생 사와라 친왕에게 송도 천황(崇道天皇)이라는 시호를 올리고 정중하게 제사를 지내 그의 노여움을 달래려고 하였다. 결국 칸무는 이러한 저주의 소문을 못이기고 “나라” 를 떠나 헤이안교(平安京)에 새도읍지를 건설하게 된다.

새도읍의 이름을 헤이안(平安, 교토)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부디 나라와 국민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뜻이었다. 나라(奈良)시대 말기에 칸무 천황의 생모 고야신립 황태후는 조상신을 모시는 하라노 신사를 만들었다. 하라노 신사의 주신인 아마끼(今木神)신은 백제 도래계 씨족인 아마토(和氏)의 먼조상신

인데 원래 나라(奈良)의 고시(高市)에 모셨던 것을 헤이안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아마끼 신이란 말은 “지금 오신 분” 또는 “새로 오신 분” 이라는 뜻이다.

에도 시대의 국학자 한노 부토모(1775-1846)씨는 아마끼 주신은 백제 성명황이고 구도왕은 백제 개국왕 온조왕이며 제 3신은 고개신(古開神) 두분으로 고신(古神)은 비류왕이고 개신(開神)은 근초고왕인데 모두가 백제를 건국하고 나라를 일으킨 백제왕들이었다.

네번째 신은 백제 무령왕과 순타태자의 후손으로 일본 49대 코닌 천황의 황태후로 평성궁 후궁에 모셔있다가 하라노 신사에 모셔진 히메신이다. 서기 782년 칸무천황의 치세가 시작되면서 아마끼 신에게는 종 4위 벼슬을 내렸는데 칸무의 교토시대가 되면서 역대 천황들은 하라노 신을 칸무천황의 외척신으로 특별히 대우해서 하라노 신의 위상이 급상승하게 된다.

서기 863년에 아마끼 황대신은 신중에서 최고로 높은 신이 되었고 863년에는 구도대신, 하루야키 대신은 정 9위가 되었으며 히메대신은 종 4위에 위치하게 된다. 서기 927년에 완성된 엔키시키(延喜式)에 의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황태자가 직접 제사를 지내는 특수한 신사가 되었다. 이는 이 하라노 신사가 황실의 지위에 합당할 만큼 격이 높은 신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에 말한 것처럼 일본에는 3분의 황대어신(皇大神)이 있는데 첫째는 일본의 최고신 천조대신이고, 두번째 가스카(春日大神)신은 가라히토(韓人) 후지와라씨의 백제계 선조신이다. 세번째가 백제의 조상신 아마끼대신이다. 하라노 신가의 정문에는 평야신사(平野神社)라고 쓴 커다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하라( 평야)라는 말은 칸무천황의 선조와 후손들의 씨사라는 뜻이다. 평야의 야(野)는 황실을 의미하는 말이고 대신사는 아마끼 신이라는 대신이 있는 신사라는 뜻이다.

### 신찬 성씨록

칸무 천황의 생모는 고야신립 황태후로 백제사람이었다. 칸무의 아버지 코닌 천황의 어머니도 백제 도래인의 딸 다카노니 하가사였다. 그녀는 서기 785년 가와치의 가타노에서 제천의식을 행하였으며 서기 794년 헤이안경으로 천도해서는 하라노 신사를 짓고 백제왕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칸무 천황 여인들 중에 백제 의자왕의 아들 부여선광(夫餘善廣)의 후손이 있어 백제 왕씨를 후궁으로 맞아 들인다. 칸무는 자신의 후궁에 9명 이상의 백제 여인들이 있었다. 속일본기에서 그는 항상 말하기를 백제 왕씨는 그의 외척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우대하였다. 그 때문에 일본 조야에서는 백제계와 한방울의 피라도



교토의 헤이안 신궁



벚꽃이 아름다운 하라노 신사



의자왕 의 아들 선광은 하라가타에 살았다. 쇼무천황이 후손 경복에게 백제왕 신사를 건립



하라노 대신사



화신립 태후의 릉

섞인 여인을 찾아 내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 되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엉터리 가짜 족보나 계보가 유행하게 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게 되었다.

고대 일본왕실의 족보라고 평가되는 귀중한 고문서가 있었다. 서기 815년 칸무 천황이 지도하여 일본 왕실에서 편찬한 신찬 성씨록이 바로 그 책이다. 칸무 천황의 5재 아들 만다(萬多)천왕이 엮어낸 책인데 그 내용이 무척 방대하고, 한일 동족론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왜국의 지배자가 한반도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고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잘 알려진 스이코 천황의 남편인 30대 비타츠(572-585) 천황이 백제 왕족이었다는 사실도 신찬 성씨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신찬 성씨록에서 비타츠 천황의 성씨가 진인(眞人)인데 이 성씨는 천무천황 13년(686년)에 제정된 팔색(八色)의 성씨 중에 제 1위 성씨로 ‘황족’에게만 주어 신 성씨라고 한다.

칸무천황은 일본 역사에 오래 기록될만큼 좋은 천황이었다. 그의 치세 중에 나라를 잃은 백제 유민들을 위한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필설로만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칸무도 비난받아야 할 사건이 있었다. 집권초에 그는 일본과 삼한(백제)은 동종이라며 상호간의 우호를 원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백제 문화를 소개하는 모든 책을 불태워 버렸다. 칸무천황은 그 이유가 일본열도의 안정을 보장해 주려는 의도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납득할 수 없는 공색한 변명이었다. 그리고 14세기 중엽에 편찬된 “신황정통기”에서 그 진위가 밝혀지고 그 이유가 적혀 있었다.

그내용은 “일본은 신명이 가호하는 신국으로 타국보다 강하고 우월하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신의 자손인 천황이 대대로 통치하는 국가이며 그점에 대해서 타국과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독선적인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일 뿐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42) 10년 전 \$10,000 투자

2020년 버크셔 해서웨이 연중 회의에서 주식 투자의 현인인 워런 버핏은 청중에게 다음과 같은 투자 조언을 했다. 일반 투자자 대부분의 투자 성공 비결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뮤추얼 펀드 투자종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액티브 투자 (Active Investment)와 패시브 투자 (Passive Investment)로 구분된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선별하여 투자하므로 액티브 투자라고 말하며 펀드 매니저 없이 미리 선정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패시브 투자라고 말한다. 패시브 투자의 대표적인 것이 S&P 500 인덱스 펀드이다. 인덱스 펀드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비자, 등 미국에 큰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워런 버핏이 S&P 500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투자 위험성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나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는 인덱스 펀드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게 하기 위해서 500대 기업 중에서 유망한 회사만을 선택해서 투자해야 한다. 이 뜻은 투자한 회사 수가 500개보다는 적은 숫자가 될 것이다. 특정한 몇 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500개 기업으로 묶인 인덱스 펀드보다 투자 위험성이 분명 높은 것이다.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는 투자한 후 발생하는 수익률이다. 인덱스 펀드(S&P 500)에 \$10,000을 1년 전에 투자했다면 현재 약 \$9,500으로 \$500 손실이다. 5년 전에 투자했다면 약 \$17,000으로 증가했으며 10년 전에 한 투자는 현재 약 \$32,000으로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투자 대박을 기대하며 몇 개의 기업에 투자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워런 버핏이 인덱스 펀드 투자를 추천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인덱스 펀드의 또 다른 장점은 저렴한 투자 경비이다. 뮤추얼 펀드의 평균 비용은 0.9% 정도이지만 인덱스 펀드 투자 비용은 0.1%이다. 투자 종목 비용에서 일반 투자자

는 0.8%를 더 절약할 수 있다고 모닝스타 회사가 언급한다. 우리가 미래의 수익률을 알 수는 없지만, 투자 비용을 절약하면 그만큼 투자자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인덱스 펀드는 세금도 절약이 된다.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가 사고팔지 않아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끊임없이 사고팔기 때문이다. 이것을 턴오버 (Turnover)라고 한다. 새해에 투자했던 주식이 연말에는 100% 변할 수도 있다. 또한,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면 투자자가 펀드를 판다. 펀드를 팔고 나가는 투자자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만 한다. 이처럼 일반 투자자는 펀드 투자 손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연말에 많은 세금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인덱스 펀드는 사고파는 횟수가 매우 적기에 발생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인덱스 펀드 투자는 분명한 투자 방향도

알 수 있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에 의해 투자종목이 결정된다. 한 예로 어떤 뮤추얼 펀드는 주로 외국 기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고전한다. 같은 시기에 미국 기업의 주식은 상승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떨어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국내 기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변형된 투자 방향으로 일반 투자자는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한 포트폴리오 (Portfolio) 구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나와도 투자 경비는 꾸준히 부과된다. 한 푼이라도 경비가 적으면 그만큼 나의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다. 금융산업 투자에선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투자 상품이 비싸면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닐 확률이 높다.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니라면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2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진성여왕이 ‘음란한 여인’ 이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후대 학자들의 평가는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태후와 제27대 선덕여왕을 비교해서 진성여왕이 결코 음란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 봤다. 이어서 무능한 군주로 평가 받는 것은, 진성여왕 시대부터 신라는 결정적으로 망국의 길을 가고 있었다. 어느 왕조에서나 역모와 반란은 늘 있었는데, 진성여왕은 재위하는 동안에 일어난 반란들을 끝내 진압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후삼국이 형성되었기에 무능한 군주로 평가를 받고 말았다. 진성여왕은 즉위와 동시에 지방의 세금을 1년간 면제해 주면서 선정을 펴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888년 남편 김위홍이 죽으면서 모든 것이 뒤엎리게 되었다. 재정이 없이 통치를 할 수 없었으니 1년간 면제해주었던 세금을 걷기로 하였지만 지방 주세, 군郡으로 부터 세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세금을 독촉하게 되었고, 그 독촉은 오히려 백성/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891년에는 북원北原(현재의 강원도 원주)에서 양길梁吉이 부하 궁예弓裔를 동쪽으로 보내서 명주溟州(현재의 강원도 강릉)를 차지하였다. 궁예는 후일 901년에 고려를 건국하였고, 904년 마진으로 개명하였다가 911년 다시 태봉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892년에는

견훤甄萱이 완산주(현재의 전라북도 전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건의 반란과 호족세력들이 웅거하였지만 936년 왕건이 후백제를 흡수할 때까지 후삼국시대를 형성하였다(신라는 935년 제56대 경순왕 김부가 김봉휴에게 서신을 가지고 고려 태조 왕건에게 가서 항복을 청하게 하였다. 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세운 ‘천년 왕조’ 신라는 992년만에 운명을 고쳤다).

진성여왕이 단지 무능해서 신라가 멸망했다기 보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라는 제36대 해공왕 시대부터 많은 것들이 뒤엎히고 있었다. 골품제도의 문란, 귀족과 사찰의 대토지 소유로 인한 농민들의 고초, 불교의 타락, 무엇보다도 왕위쟁탈전은 조정의 분열을 초래했고 결국 백성들의 일상은 불안정해졌다. 거기에 더해 가뭄과 흉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의 속출과 전염병은 민초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기록에 의하면 원성왕부터 민애왕까지 약 50년간은 가뭄의 연속이었다.

822년 3월 김헌창金憲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백성의 절반이 그를 따를 정도로 민초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믿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비록 ‘10일 천하’로 막을 내렸지만 김헌창은 장안국長安國이라는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기도 하였다. 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제44대 헌덕왕이 재위하고 있었는데, 헌덕왕 김인승은 원성왕의 장남 김인겸(혜충태자)의

차남이다. 장안국의 왕을 10일간 지낸 김헌창은 누구이며, 그는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그는 신라의 왕(아마도 제39대)이 될 뻔했다. 최소한 태자의 자리는 강 건너편에 있었다. 하지만 천운은 그를 외면했다(형 김종기가 있었지만 김헌창의 야망은 웅상이었다고 본다).

제36대 해공왕은 7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경덕왕을 이어 즉위하였다. 그러나 780년 ‘김지정의 난’ 외중에 살해 당했다. 동성애자거나 성전환자였던 해공왕은 후사가 없었고, 왕위는 난을 진압한 상대 김양상이 차지하였다. 김양상 역시 후사가 없이 785년에 사망하였다. 이미 해공왕을 이을 왕족이 마땅치 않았는데, 족보가 불분명한 김양상이 죽자 조정은 차기 왕위를 이을 왕족을 찾기에 분주했다. 그래서 대신들은 태종무열왕의 차남 김인문의 현손자 김주원을 차기 왕으로 추대하였다. 알천 건너 북촌에 살고 있던 그는 즉위를 위하여 왕궁으로 향했다. 그러나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홍수로 불어난 알천을 건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상대 김경신이 왕좌를 차지 하였다(785년 음력1월13일). 알천을 제때 건너지 못해 왕위를 도둑맞은 김주원은 후환이 두려워 하슬라(현재의 강원도 강릉)로 피신했다. 787년 하서주(명주)의 도독으로 임명되어 명주군왕冥州郡王에 봉해졌다.

김주원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장남 김종기는 790년(원성왕6년)에 시중을 지냈다. 차남 김헌창은 807년(제40대 애장왕8년)이

찬(2등급)의 관등으로 시중에 임명되었다. 813년(헌덕왕 재위시) 무진주(현재의 광주광역시) 도독으로 갔다가, 814년 다시 시중에 올랐다. 816년 청주도독을 거쳐, 821년 웅천주(현재의 충청남도 공주) 도독으로 부임했다.

김헌창은 웅천주 도독 재임시, 과거 785년 아버지 김주원이 김경신(원성왕)에 의해 왕위에 오르지 못한 한을 품고(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822년 반란을 일으켜 장안국을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에 헌덕왕은 난을 보고한 최웅과 영충에게 관직을 내려 다른 장군들과 함께 금성 8방을 방어하게 하였으며, 특히 김충공(민애왕의 아버지)과 윤응은 문화관문(관문성)을 지켰다. 장웅을 선발대로 위공과 제릉이 그 뒤를 따랐고, 김군정(신무왕의 아버지), 김응원, 김우징(후에 신무왕) 등이 삼군을 지휘하였다. 김헌창의 반란 제압에는 화랑들의 활약이 무엇보다 돋보였다. 화랑 명기明基는 휘하의 낭도들을 통솔하여 황산黃山으로 출전하였고, 화랑 안락安樂 역시 낭도들을 이끌고 시미지진施彌知鎭으로 향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www.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 JUNE 22ND - JUNE 29TH, 2023 •

# DR.CHUNG'S FOOD Rich Soy Soup

# \$8.99

진한 콩국물  
32 FL OZ  
X 4 EA/PKG



• SAME PRICE •  
**SPECIAL**  
**4 PACK VALUE**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 아이유 '분홍신' 표절 논란 새 국면... 넥타 측 입 열어

### 넥타 "10년 전 연락했지만 회신 없어" vs 아이유 측 "메일 회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가수 아이유의 히트곡 '분홍신' (2013)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 노래와 비슷하다고 지적된 해외 뮤지션 넥타 측이 10년 전 이미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아이유 측에 연락했지만 지금까지 답을 얻지 못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아이유 측은 회신 이메일을 공개하며 이를 부인했다.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넥타의 음반 발행사인 노르트엔트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은 최근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지금까지 아이유, 로엔 엔터테인먼트(전 소속사) 혹은 이담의 공식 대변인 등 누구도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의 접촉 시도에 응답하거나 연락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르트엔트는 "이미 2013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언론이 '(아이유 측) 제작 책임자가 우리 또는 넥타에 연락해 저작권 위반 이슈를 해

명했다고 보도한 것을 접하고 크게 놀랐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노르트엔트는 아이유의 '분홍신'이 넥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 이슈 관련 기사'를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분홍신' 유사성의혹에 힘을 실고 나선 것이다. 넥타 측이 '분홍신'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홍신'은 발매 당시인 2013년 해외 뮤지션 넥타의 '히어스 어스'(Here's Us)와 멜로디 일부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아이유 측은 "둘은 완전히 다른 노래"라고 부인하며 "멜로디는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코드 진행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은 공식 SNS를 통해 2013년 당시 소속사였던 로엔이 넥타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넥타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이메일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와 노르트엔트가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공개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담은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답이 없었다'고 밝힌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넥타 측의 주장처럼 당사나 작곡가 등은 당시 논의가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인터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담은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번 우리 측에 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6월 25일 - 7월 1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운 철학원 [www.askjiyun.com](http://www.askjiyun.com) 213-739-2877

<p><b>쥐띠   현실에 만족하고</b></p> <p>● 운수: 현실에 만족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투자나 사업 확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동요만 없다면 무난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히면 이득이 따릅니다. ● 애정: 처한 현실이 힘들수록 부부나 이성 간에 이해심으로 상대를 받아주어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7, 1일 길일, 26, 29일 주의.</p>	<p><b>소띠   차분한 마음으로</b></p> <p>● 운수: 주의가 산만하고 초조해지기 쉽군요. 이 일을 하면서 저 생각 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차분한 마음으로 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계산상의 착오로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애정: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8, 1일 길일, 27, 30일 주의.</p>	<p><b>범띠   해결의 실마리를</b></p> <p>● 운수: 자신의 판단에 확신하고 행동해도 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 애정: 약혼이나 결혼하기에 최적 기일입니다. 우연히 방문한 곳에서 멋진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6, 29일 길일, 28, 1일 주의.</p>
<p><b>토끼띠   가슴을 활짝 열고</b></p> <p>● 운수: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과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먼저 베푸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좁은 소견으로 결정하면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 애정: 사랑의 감정에 빠져있어도 결혼을 결심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5, 30일 길일, 29, 1일 주의.</p>	<p><b>용띠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b></p> <p>● 운수: 해외로 나가거나 장거리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나 변동, 확장하기에도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 금전: 힘들다고 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훗날 찾아오는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5, 1일 길일, 28, 30일 주의.</p>	<p><b>뱀띠   애정이 더 깊어지는</b></p> <p>● 운수: 오랫동안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이 해결되고 여러 면에서 나아집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 금전: 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쉽게 풀려 나아갈 것입니다. 뜻밖의 소득으로 웃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희소식이 들려오고 애정이 더 깊어집니다. 권태기의 부부나 연인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9, 30일 길일, 25, 1일 주의.</p>
<p><b>말띠   적당한 선에서</b></p> <p>● 운수: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 통하지 않고 막히는 일이 있을 때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 금전: 수입이 떨어지는 주입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애정: 주위의 눈을 피해서 만나야 하는 사랑이 점점 깊은 관계에 빠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잘 피해 가야 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5, 30일 길일, 26, 28일 주의.</p>	<p><b>양띠   행복하고 편안한</b></p> <p>● 주위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대길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지지를 얻을 기회가 오니 신용회복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성실하게 일하면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재기할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 애정: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외로웠던 사람은 의지할만한 사람을 만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6, 29일 길일, 27, 28일 주의.</p>	<p><b>원숭이띠   조금씩 이루어지는</b></p> <p>● 운수: 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 금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안정되는 시기이니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 애정: 일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나누게 되니 더 가까워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7, 1일 길일, 25, 28일 주의.</p>
<p><b>닭띠   미리 대처하는</b></p> <p>● 운수: 계획했던 일이 다소 늦어질 것이니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 금전: 매매하는 일로 고심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유혹에 빠져들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앞다리를 걸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93, 81, 69, 57, 45, 33년생은 27, 1일 길일, 26, 29일 주의.</p>	<p><b>개띠   한 걸음 물러서서</b></p> <p>● 운수: 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앞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겠습니다. ● 금전: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순간적인 결정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함께 가야 할 수많은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p>	<p><b>돼지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b></p> <p>● 운수: 그동안 해오던 일을 바꾸거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을 계획이 있었다면 실행에 옮기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 금전: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니 지금 오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외부로 활동해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연인이나 가족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독신자는 분홍빛 사랑을 맛보게 되는 주가 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6, 30일 길일, 28, 1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5/26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38년 운영한 세탁소 판매 3/10  
은퇴위해 매매 합니다.  
Tel 617-304-1388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2/3  
Tel 978-343-6080, 978-407-9029

덴탈 랩 매매합니다. 1/20  
Tel 508-215-9122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1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 이병헌 "콘크리트 유토피아' 재난영화 아닌 블랙코미디"

(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이 작품을 재난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재난이 벌어진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고 소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지를 담은 '휴먼 블랙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엄태화 감독이 연출한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주연 배우 이병헌은 21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이 영화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궁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김승룡 작가의 웹툰 '유쾌한 왕따' 2부 '유쾌한 이웃'이 원작이다.

엄 감독은 "사람들이 가장 친숙한 공간에서 극한 상황에 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각색했다"며 "등장인물 중 나와 비슷한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헌은 외부인들로부터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새로운 주민 대표 영탁을 연기했다.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출연을 결심했다는 이병헌은 "황궁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아무리 단합해도 각자 생각과 성향, 개성은 다르다"며 "서로 분열하기도 하고 이기심과 잔인함의 끝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 (다른 재난 영화와) 차별화된 점"이라고 말했다.

박서준, 박보영, 김선영 등 다른 배우들은 이병헌이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박서준은 "워낙 이병헌 선배님의 팬



배우 박보영(오른쪽)과 박서준이 21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제작보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어서 꼭 작업해보고 싶었다"면서 "저에게 제안이 온 상황이 아니었는데, 먼저 제가 감독님에게 출연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어필했다"며 웃었다. 그는 재난 이후 가족을 지키는 것이 단 하나의 목표가 된 민성을 연기했다.

황궁아파트 부녀회장 금애 역의 김선영은 "언제 이병헌 선배님과 만날지 모르는 것 아니냐.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고 캐스팅 당시를 돌아봤다.

엄 감독은 "이병헌 씨를 캐스팅해서 극의 중심을 잡아주면 좋은 배우들이 (따라)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출연진이 모두 확정되고 촬영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며 미소지었다.

박보영은 촬영장에서 이병헌의 연기를 보고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그는 "촬영장에서 배우들끼리 농담하다가 선배님이 갑자기 분노하는 연기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순간 눈을 감아 끼운 줄 알았다. 잠깐 사이에 변하는 눈빛

을 보고 배우란 저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민성의 아내이자 간호사 명화 역을 소화했다.

엄 감독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이들 배우가 그리는 캐릭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황궁아파트라는 배경이었다고 강조했다.

영화 속 황궁아파트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새로 지은 세트장이다. 폭격을 맞은 듯 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바닥을 뚫고 박힌 자동차가 이곳저곳에 있는 등 사실적으로 표현됐다.

엄 감독은 "황궁아파트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새로 짓자고 마음먹었다"며 "내부 모습도 여기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병헌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규모가 크고 압도되는 장면이나 음향이 많다. 극장에서 보는 것과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라며 관객들에게 영화관을 찾아 작품을 봐주기를 당부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신영이 만난 사람

사람을 만나는 일 참으로 가슴 설레는 일이다. 그것은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온 우주를 담아온다고 하지 않던가. FM 87.7 '라디오 코리아 뉴욕' 매주 일요일 아침 9시 30분에 <신영이 만난 사람>으로 청취자들과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30분에 <신영 전도사의 하늘스케치> 방송을 애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어 참으로 감사했는데, 이 방송은 전도사가 아닌 작가로 매주 일요일(주일) 아침 <신영이 만난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폭을 더 넓혀 여러분을 만나뵙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지 않던가. 부족한 모습으로 시작하기에 더욱 노력과 성실과 열정과 정직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곁에서 이 방송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용기를 얻는다. 응원의 큰 박수가 내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 오늘의 신경이를 있게 했는지도 모른다. 책 속에서 만난 작가들을 비롯 교육자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

들을 중점적으로 모시고자 한다. 그 외의 한인 단체장으로 한인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인사들을 모시고자 한다. 가끔은 상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어나가고 한다.

혹여 주변에 아는 지인을 이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주셔도 좋고, 그분의 이야기를 제 이메일에 글로 보내주시면 그 사연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며 나누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에서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특별한 것처럼 '특별하지 않은 이들의 소소한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소망한다. 함께 공감하고 더불어 소통하며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되어지는 일, 바로 그 일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함께 기뻐하는 가슴벅찬 오늘을 맞는 일 말이다. 그렇다, 이렇듯 우리는 내게 있는 것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가끔 만나는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중 이런 얘길 나눌 때가 있다. 살면서 쓴 것 만큼이 내 돈이고 누린 것 만큼이 내 것이라고 말이다. 이 말에 동의하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저를 조금은 아실 것이다. 저역

시도 그분들의 가슴 속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등등 연연해하지 않는 삶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게 주어진 것에 책임을 다하는 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말이다. 그렇게 산다면 조금은 삶이 단조로워질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의 평안을 안내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렇듯 이런 방송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것이다. 좋은 것은 기쁨으로 나누고, 슬픈 것은 위로하며 안아주고, 부족한 것은 서로 풀어주고 채워주며, 넘치는 것은 털어주고 나눠주는 일 그래서 서로에게 따뜻한 나눔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방송으로 이어가고 싶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풀어내며 살아가는 가슴 시원한 방송을 하고 싶은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와 응원의 큰 박수가 필요하다.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방송이 되길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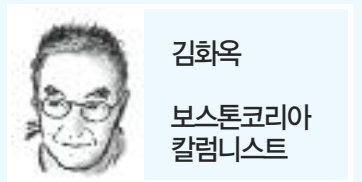
'함께' 라는 말처럼 따뜻한 말이 또 있을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외롭증에 시달리면 사는지도

모른다. 개인주의 시대에 살면서 간편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간편함을 그 편리함이 나 자신을 스스로 외롭게 가둬버리는 것은 아닐까 싶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차가워진 요즘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거나 주기도 조심스러운 세상을 살아간다. 그 외로움 속에서 어떤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찢찢때때가, 또 어떤 이는 그 외로움을 차곡차곡 쌓다가 우울해지기도 하는 그래서 우울병에 걸리는 일도 있지 않던가.

이 모든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고,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상담시간을 마련해 함께 나누고 풀어가고 싶은 것이다. 나의 어려움을 어느 누군가에게 내 입밖으로 끄집어 낼 대상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외로움을 극복할 힘이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 몸으로 웅크리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마음을 열고 가슴을 펴는 연습이 훈련이 필요하다. FM 87.7 <신영이 만난 사람> 매주 일요일(주일) 아침 9시 30분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며 함께 치유하는 '소중한 방송'으로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최고 보단 최선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신문 편집자의 변이다. 그의 글쓰기 비법을 공개한다. 그대로 옮긴다. '그냥 오래 씁니다. 원고지 11매 쓰는데 최소 6시간 투입합니다. 달필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래 쓸수록 글에서 기쁨기가 빠지고 담백해 집니다. 사견이 줄어들고 겸손해 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오래 쓰면 글이 화려해 진다고 하는데 실재론 반대입니다.' (조선일보, 편집자의 말) 역시 완전함을 향한 의지일터.

시 구절이다. 동거가 제목이다. 소개와 진

주를 읊었다. 완벽한 진주 말이다.

저 아름다운 동거!  
제 피와 살점을 뜯어 먹여  
마침내는 완벽한 진주로  
키워내고야 마는  
조개의 저 지독한 사랑이여!  
(김선태 동거同居중에서)

완전完全이라. 완과 관련해 몇 단어가 떠오른다. 완성成, 완결結, 완수遂, 완료了, 완승勝, 완쾌快, 완벽벽, 완은 최최와 짝을 이

룰수도 있겠다. 최자를 찾았다. 최강強, 최고高, 최古 최근近, 최다多, 최단短, 최대大, 최선善, 최소小, 최신新, 최악惡, 최장長, 최저低, 최적適, 최종終, 최초初, 최하下, 최후後.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이야기. 몇번에 걸친 시험 비행을 마쳤단다. 이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기사를 읽고 사진을 보는 것도 자랑이다. 그러나 아직 같길은 멀다.

= 티끌만한 결함도 치명적일 수 있다.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오히려 불안하다. 분명 놓치고 있는게 있을테니 말이다. 결점을 찾고 나면 길이 보일테고 고칠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 이걸 내 생각이다.

완전하며 최고라면 더 이상 바랄게 없을게다. 그러나 세상에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 돈 나와라 뚝딱. 쌀 나와라 뚝딱. 비행기 나와라 뚝딱. 진주 나와라 뚝딱. 한방에 신

형 전투기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다. 세상에 완전은 없으니 완전함에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겠다.

유대인은 최고를 지향하지 않고, 독창성을 지향한다고 했던가. 나 역시 동의 한다. 그러나 독창성에도 최고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되묻고는 하는데, 차차가 있기 때문이다. 차선善이요, 차남차녀이며, 차석席도 있다는 거다. 모두 둘째 라는 말이고 미인대회에서도 진선미眞善美라 한다. 진이 일등이고, 선이 차등인데, 미美역시 등수에는 든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 5:17)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등등

=>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정술, 흰다리교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등등

=>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I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근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아인병원 안과 이 응석 원장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는 안과 질환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아인병원 안과 이 응석 원장의 도움을 받아 미세먼지가 우리 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날씨예보와 함께 늘 신경 쓰이는 주의보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흔히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미세먼지의 호흡기 유입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은 이제 익숙하다. 하지만 눈은 어떨까. 미세먼지는 눈에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눈 질환 유발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안구건조증, 감염성 각결막염 등 눈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눈에 접촉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미세먼지는 눈을 비롯해 코, 입, 기관지 점막 등 공기와 만나는 조직에 들러붙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미세먼지에는 구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나 질소,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

이 포함돼 있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더욱 잘 일으킨다.

미세먼지로 인한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꺼풀이 붓거나 눈이 가렵거나 이물감, 눈물 흘림, 충혈, 통증 등 증상에 그칠 수 있다. 드물게 각막염이나 각막 궤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때는 심한 통증, 눈부심, 시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1~2주 안에 좋아진다. 하지만 눈을 자주 만지고 비비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이 심해져 매우 위험하다.

◆안구건조증도 악화시켜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는 안구건조증 환자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안구건조증 중 눈물층이 잘 형성되지 않는 유

형은 미세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어렵다. 눈물양이 부족해 눈으로 들어온 이물질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안구건조증 증상에는 이물감, 뻑뻑함 등이 있다. 심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시야가 뿌옇게 보이고 묵직한 느낌, 통증 등이 있다. 미세먼지로 눈물 분비가 평소보다 많아져도 안구건조증을 의심하고 안과 진료를 봐야 한다.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 착용

콘택트렌즈 착용 시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미세먼지 입자가 렌즈 표면에 달라붙거나 렌즈 안쪽으로 들어가 눈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이다. 콘택트렌즈보다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꼭 콘택트렌즈가 필요한 경우에는 렌즈 세척 등 관리를 더욱 신경써

야한다.

◆눈 건강 지키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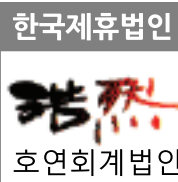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외출시 외출을 자제한다 △선글라스, 고글 등을 착용한다 △눈을 충분히 깜빡여 눈물 분비를 유도하고 건조한 환경을 피한다 △외출 시 인공눈물을 소지하고,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씻어준다 △눈에 이물감이 있거나 가려움을 느낄 때 손으로 만지지 말고, 인공눈물로 세척한다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말고, 외출 후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인공눈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즉시 안과에 방문한다.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는 안과 질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에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전상품 1년 약정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코로나바이러스 질병(COVID-19) 지침 종료

2023년 4월 10일 COVID-19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었습니다.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SEVP)은 2023년 5월 11일자로 코로나바이러스 질병(COVID-19)과 관련된 지침을 종료했습니다.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은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F 및 M 비자를 소지한 비이민 학생과 이러한 비이민 학생을 등록하도록 승인된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은 COVID-19 위기 상황으로 인한 중대한 공중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특별 COVID-19 지침이 발효되었습니다.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의 규칙에 따르면 비이민 학생은 F-1 또는 M-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풀 코스 학업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학기당 1개 수업 또는 3학점

상의 온라인 수업은 F 신분 학생의 풀 코스 학업과정의 요구 사항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M 신분 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이러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은 학교가 COVID-19 위기와 관련된 중대한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절차와 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대면 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 또는 기타 대안 학습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 비이민 학생들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또는 기타 대안 학습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COVID-19 비상사태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은 F-1 또는 M-1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풀 코스 학업과정으로 일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3월 이러한 COVID-19 지침을 반영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은 2021-2022 학년도와 2022-2023 학년도에 걸쳐 계속할 것이라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11일부터 COVID-19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COVID-19 지침 역시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F 및 M 학생들은 2023년 여름 학기를 통해 COVID-19 지침에 따라 2022-2023학년

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가을 학기부터 F 및 M 학생은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의 규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이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풀타임 학습과정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이 미국 밖에 체류하는 동안 더 이상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F-1 또는 M-1 신분으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은 미국에 다시 입국해야만 합니다.

## 성형 패키지 특별가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함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함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TALK 010-3469-4040 / ID : hureamkorea

huream@huream.kr / www.hureamkorea.com





#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